

# “의대 증원 일단락... 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

### 장상운, 전공의·의대생 복귀 호소 “의료개혁 추진 사법절차내 인정 의료계에 조건없는 대화개시 요청”

대통령실은 19일 의료현장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의대 증원이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장상운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일부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그간 연구와 조사 및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목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짓

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대학에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석은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요청했다. 특히 집단적 행동이 아닌 ‘각자의 판단’에 호소했다. 그는 “전공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건 결국 이런 시점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장수석은 의대생들을 향해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돼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이후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학교육 투자’ ‘국립·지역 의대 시설투자’ 대폭 확대를 수차례 공언했다며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교수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을 확정하고 신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수석은 의료계를 향해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특위 참여 등 정부와의 1대1 만남이든,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조건 없는 의정 대화 개시를 요청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재명, 연일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 달래기

### “당원 늘리고 권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당원들을 만나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 달래기에 나섰다.

‘명심’으로 여겨졌던 추미에 의원 대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반발해 강성 지지층의 탈당 움직임이 거세지자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19일 오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 충청편’ 행사에서 “당원을 두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배로 늘려 당원 중심인 정당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전날 호남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강성 당원 설득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당원동지 여러분,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그런 사연도 꽤 있죠”

라고 물으며 지난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거론했다. 그는 “언제나 바르고 편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란 점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잘 안 맞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작은 차이들을 이겨내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며 결국 손잡고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아직도 흑시 제재하기 위해, 혼을 내주기 위해 탈당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당비를 끊으시라”며 “탈당”을 직접 언급하며 만류하기도 했다.

그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책임지겠다고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맞춰가는 과정이고, 사물을 보는 시각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해병대 여단장·대대장 대질조사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과 제11포병 대대장이 19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

##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기부 건수 ‘뚝’

### 올해 모금 총액 전년비 32% 감소 운영역 “자율적 모금활동 보장”

올해 1분기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운영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12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모금 총액은 87억3600만원이었으나, 올해 모금 총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31.8% 감소한 59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1월 모금액은 40.4% 감소한 19억7700만원, 2월은 21.4% 감소한 18억7000만원, 3월은 30.6% 감소한 21억1300만원이었다.

올해 1분기 기부 건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2% 감소한 4만4294건에 그쳤다.

1월 기부 건수는 35.8% 감소한 1만2989건, 2월은 23.6% 감소한 1만4013건, 3월은 30.6% 감소한 1만7292건에 불과했다.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는 올해 1분기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96.5%인 4만59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는 1월은 2.4%, 2월은 2.0%, 3월은 1.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자의 증가에도,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감소한 것은 고액 기부자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적을 공개한 212개 지자체 중 2024년 1분기 모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지자체 수는 70.3%에 달하는 149개였다.

모금 건수는 81.1%에 해당하는 172개 지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운영역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모금의 결과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정부(행안부)가 지자체의 모금활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탓이 크다.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 선출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로 허은아(사진) 후보가 19일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전당대회를 열고 합산 득표율 38.38%를 기록한 허은아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허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

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2~4위를 기록한 이기인(35.34%)·조대원(11.48%)·전성균(9.86%) 후보는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

신임 지도부는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권역별 합동연설회·토론회와 전당대회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대학생·연론평가단 투표 25%를 반영해 선출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 추경호, 비서실장에 정희용 임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13명의 신임 원내부대표 전원을 초선 당선인으로 구성하고, 비서실장에는 정희용 의원을 임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김재섭·박수민·정성국·박성훈·우재준·김상욱·강명구·조지연·김종양·이종욱·박준태·진종오·김소희 등 13명의 원내부대표 인선을 발표했다.

이중 김재섭(87년생)·정성국(71년생)·박성훈(71년생)·우재준(88년생)·김상욱(80년생)·강명구(77년생)·조지연(87년생)·박준태(81년생)·진종오(79년생)·김소희(73년생) 당선인은 모두 70년

대 이후 출생한 젊은 당선인들이다.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울산·경상과 비례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임명됐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을 내정한 바 있다.

신임 원내부대표단은 향후 당헌·당규에 따라 원내대표 추천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독립운동 미서훈자 지원조례’ 제정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순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목포1·사진)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했음에도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최 위원장은 “전남은 의병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성지이나 후손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조례제정으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과 명예회복을 위해 마지막 한명까지도 꼭 찾는다

는 각오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1·2단계로 나눠 독립운동 미서훈자 2500여명을 발굴했다. 1단계는 3·1운동을 중심으로 128명을 발굴해 2022년 80명을 서훈 신청했고 2단계는 1895년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까지 2456명을 발굴해 123명에 대해 서훈 신청을 진행했다. **곽지혜 기자**